

핵 명사의 논항 선택과 생산성 결정 요인*

- ‘사냥’과 ‘낚시’ 합성어를 중심으로 -

조 민 정**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Abstract>

Jo Min-Jeong, 2013. A Study on the principle of selecting argument of head noun and productivity between ‘N1-Sanyang, N1-Nakssi’. *Korean Semantics, 40*.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which factor makes the differences in selecting argument of head noun and productivity of ‘N1-*sanyang*, N1-*nakssi*’ compound words. *Sanyang* and *nakssi* are predicative nouns which make the compound word with its argumen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selecting argument of predicative noun. N1 of *sanyang* is an instrumental argument, but N1 of *nakssi* are method, and place argument. What is more the productivity of two compound nouns are differ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factor of selecting argument is under ‘foreground/background understanding’, ‘the avoid strategy of ambiguity’, and ‘the law of proximity’

‘N1’ of ‘N1-*sanyang*’ is mainly a instrumental argument, but ‘N1’ of ‘N1-*nakssi*’ are method and places.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argument are originated that the speaker consider those are foreground factor. That’s why those argument make the difference between two activities.

The productivity of two compound nouns are explained by ‘the law of proximity’. If something is important in human life, new words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KRF2009-361-A00027)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연구교수

which are around those thing are made productively. So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at two compound nouns.

핵심어: 합성어(compound word), 논항(argument), 관점(viewpoint), 전경(foreground), 배경(background), 중의성(ambiguity), 근접성의 원리(law of proximity)

1. 머리말

1.1. 논문의 목적

단어는 그 짜임새가 단일한가 복합적인가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 그리고 복합어 중 합성어는 어기와 어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언어 내적인 규칙과 함께 언어 외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성어는 파생어에 비해 그 형성 방식이 불규칙한 편이어서 형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합성어의 구성 성분인 어근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형성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어 형성의 한 축을 이루는 합성어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조어 현상의 면모와 방향성에 대한 균형 있는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냥’과 ‘뉘시’는 둘 다 서술성명사로 자신의 논항과 주로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든다. 그런데 ‘사냥’은 주로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를 논항으로 선택하는 반면 ‘뉘시’는 ‘방법,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논항으로 선택하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²⁾ 또한 두 명사가 만들어내는 합성어의 생산성에서도 차이

2) 의미역을 다룬 논의(Jeckendoff, 1992; Haegeman, 1992; Webelbuth, 1995)에서 의미역의 유형과 명칭은 다양하다(본고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계로 참고문헌 목록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본고는 서술성 명사에서 서술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 관여하는 것을 논항으로 보며, 논항이 의미구조에서 가지는 기능에 따라 ‘대상, 도구, 방법, 장소’ 등으로 구분하였다. 도구(instrument)로는 ‘칼, 총’과 같은 것이 해당되고, ‘방법(method)’은 행위의 방식을 나타내는데, 예컨대, ‘걷다, 달리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느리게’에 의해 구분된다. 이 경우 ‘빠르게, 느리게’ 등이 ‘방법’에 해당된다.

가 있다.3) 본고의 목적은 동일한 의미장에 속하는 서술성명사가 합성어를 만들 때 논항 선택에서 차이가 나는데, 서술성명사가 자신의 논항 선택에 관여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들이 생산성에서 보이는 차이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4)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냥’과 ‘낚시’가 자신의 논항 선택에서의 차이를 ‘중의성 회피 전략’과 ‘전경/배경 조직’으로, 생산성에서의 차이는 ‘근접성의 원리’를 가정하여 설명할 것이다.

‘중의성 회피 전략’이란 한 형태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화자는 그러한 의미의 중의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이른다. 중세국어의 ‘-어 잇’이 ‘완료’와 ‘지속’의 의미를 가지다가, 이후 ‘완료’는 ‘-았-’으로 ‘지속’은 ‘-어 있-’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것도 그러한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낚시 합성어 중 ‘릴낚시, 대낚시, 외줄낚시, 활낚시’는 ‘도구명사+낚시’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 중의적이다. 그 외에 ‘도구명사+낚시’ 구성(예문 (2) 참조)은 ‘**낚시도구**’만을 나타내고, ‘**낚시질**’이라는 의미는 주로 ‘**방법명사+낚시**’를 통해 표현된다. 그렇다면 왜 ‘낚시질’은 주로 ‘**방법명사+낚시**’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배경 조직’이란 화자는 자신에게 더 중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을 덜 중요하거나 관심이 적은 것보다 먼저 지각하여 구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지문법에서 가정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장면은 여러 관찰점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 특정한 관찰점을 선택하면, 그 관찰점에 의해 장면의 배열이 달라진다. 그렇게 달라진 장면 중 하나는 ‘전경’이 되고, 다른 것은 ‘배경’이 된다.

3) 어기의 생산성은 “결합되는 어기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하치근, 2009:268).

4)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질문과 토론으로 도움을 주신 남기심 선생님과 연구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논문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본고에서 다루는 합성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로 등재되었으나 <<고려대사전>>에 등재된 ‘사냥’합성어는 ‘개사냥, 기업사냥, 마녀사냥, 몰이사냥, 설사냥, 총사냥’이고, ‘낚시’ 합성어는 32개이다. 반면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 등재된 ‘사냥’합성어는 ‘개사냥, 마녀사냥, 매사냥, 총사냥’이고, ‘낚시’합성어는 10개이다. 사전마다 합성어 목록이 다른 것은 일차적으로 사전의 크기와 관련되지만, 그 외에도 사전편찬자가 합성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관련된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합성어를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하는 것은 종이 사전의 경우 부피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합성어를 표제어로 등재하기 위한 기준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먼저, ‘전경’은 관찰점에서 가장 인접한 장면 부분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경’에 있는 것(참여자)은 관찰자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배경’보다 더 뚜렷하고 쉽게 지각된다. 그래서 전경의 물체가 장면 내에서 모습으로 지각되어 주의의 초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것은 ‘배경’에 해당된다(Langacker, 1998:130-132, 자세한 것은 2.1.1. 참조). 이렇게 초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핵명사의 논항으로 선택되어 합성어가 된 것이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그것들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 문화가 변함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현상 및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새말이⁶⁾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정도(근접성)에 따라 어휘의 사용 빈도 및 생산성이 변하는데, 그것들을 ‘근접성의 원리’로 설명할 것이다. 최근 새로이 등장한 ‘미혼부’를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미혼부’가 기존에 있던 ‘미혼모’의 ‘모’를 ‘부’로 대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는 남자’가 많아지면서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생성된 어휘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앞선 논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냥’은 “총이나 활 또는 길들인 매나 올가미 따위로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로 풀이되어 있고, ‘냥시’는 네 가지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1).⁷⁾

- (1) a. 미끼를 피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
- b. 냥시대, 냥시줄, 냥시바늘, 냥시봉, 냥시찌 등이 갖추어진 한 벌의 고기잡이 도구.

6) 남기심(1983:193)에 의하면 ‘신어’는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 그리고 이미 있었던 말이라도 새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이후로 논의의 편의상 ‘새로운 단어(말)’은 ‘새말’ 혹은 ‘신어’와 서로 바꾸어 사용한다.

7) 논문에서 다루는 합성어의 목록 및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였고, 이하에서는 따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

c. = 낚시질.

d.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이를 찌는 데 쓰는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의 의미 중 비유적 의미(1d)를 제외하면, (1a, b)는 사물을 지시하는 반면 (1c)는 실체가 아닌 동작이나 사건을 지시한다. 본고는 서술성 명사의 논항 선택과 생산성을 논의하는 관례로, 위 의미 중 (1c)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아래 (2)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낚시’ 합성어로 “낚시도구”를 나타내고, (3)의 예들은 서술적 용법을 가진 것이나 사전에 품사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것들로⁸⁾, (2, 3)과 같은 것은 본고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논의에서 다루지 않는다.

(2) 갈고리낚시, 곁낚시, 미끼낚시, 민낚시, 민지낚시, 방울낚시, 빈낚시, 빠낚시, 삼봉낚시, 소경낚시, 속임낚시, 외줄낚시, 이음낚시, 제물낚시, 흘낚시(14개)

(3) 루어[~]낚시, 멍텅구리[~]낚시, 문어[~]낚시⁹⁾

‘사냥’과 ‘낚시’ 합성명사의 목록은 사전마다 차이가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사냥’과 ‘낚시’ 합성어의 목록은 아래 (4), (5)와 같다.

(4) 개사냥, 그물사냥, 기업사냥, 노예사냥, 덧사냥, 들사냥, 마녀사냥, 매사냥, 물이사냥, 쇠사냥, 총사냥, 틀사냥, 활사냥

(5) 갯바위낚시, 걸음낚시, 견지낚시, 계류낚시, 고패낚시, 썸낚시, 끝낚시, 끝보기 낚시, 놀림낚시, 닳낚시, 대낚시, 덕낚시, 던질낚시, 덧낚시, 들낚시, 띄움낚시, 릴낚시, 맥낚시, 미끼낚시, 민물낚시, 바다낚시, 밤낚시, 배낚시, 방울낚시, 빨 낚시, 설망낚시, 손낚시, 수초낚시, 스침견지낚시, 시내낚시, 실낚시, 얹힐낚시, 얼음낚시, 외줄낚시, 자리낚시, 줄낚시, 찌낚시, 채낚시, 채찍낚시, 켈낚시, 털

8) <<표준>>에서 ‘N’N’로 표시된 것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합성어와 구구성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포함된다.

9) ‘루어[~]낚시’는 “가짜 미끼를 달아서 하는 낚시질”, ‘멍텅구리[~]낚시’는 “여러 개의 낚시바늘을 미끼의 주위에 달아서 거기에 물고기가 걸리게 하는 도구. 또는 그것으로 하는 낚시질”로 서술적 기능을 가지고, ‘문어[~]낚시’는 “문어를 잡는 낚시 어구”로 도구를 나타낸다.

6 조 민 정

낚시, 털바늘낚시, 트롤링낚시, 활낚시, 홀치기낚시, 흘림낚시¹⁰⁾

위 (4, 5)의 ‘N₁사냥’과 ‘N₁낚시’ 합성명사의 수(13:55, 4배 이상) 즉 유형빈도에서 ‘N₁낚시’가 ‘N₁사냥’보다 높은 것과 함께 핵 명사가 선택하는 논항의 의미역에서도 차이가 있다. (4, 5)를 ‘N₁’의 의미역에 따라 다시 분류해 보면 아래(6, 7)와 같다.

- (6) a. 도구: 개사냥, 그물사냥, 덧사냥, 매사냥, 총사냥, 틀사냥, 활사냥, 쇠사냥
 b. 대상: 노예사냥, 마녀사냥, 기업사냥
 c. 장소: 들사냥
 d. 방법: 몰이사냥 (총 13개)
- (7) a. 방법: 걸음낚시, 견지낚시, 고패낚시, 꿰낚시, 끌낚시, 끌보기낚시, 놀림낚시, 닳낚시, 대낚시, 덕낚시, 던질낚시, 덧낚시, 들낚시, 띄움낚시, 릴낚시, 맥낚시, 미끼낚시, 방울낚시, 빨낚시, 설망낚시, 소경낚시, 속임낚시, 손낚시, 스킵견지 낚시, 실낚시, 앞힐낚시, 얼음낚시, 외줄낚시, 줄낚시, 찌낚시, 채낚시, 채찍낚시, 켈낚시, 털낚시, 털바늘낚시, 트롤링낚시, 활낚시, 홀치기낚시, 흘림낚시
 b. 장소: 갯바위낚시, 계류낚시, 민물낚시, 바다낚시, 배낚시, 수초낚시, 시내낚시, 얼음낚시, 자리낚시¹¹⁾
 c. 도구: 대낚시, 릴낚시, 외줄낚시, 활낚시
 d. 시간: 밤낚시 (총 53개)

10) (5)에 제시된 합성어 중 ‘갈고리낚시’를 뺀 ‘견지낚시, 닳낚시, 설망낚시, 실낚시, 줄낚시, 찌 낚시, 채찍낚시, 털낚시, 털바늘낚시’의 형태만 고려하면, ‘N₁’을 도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의 뜻풀이(아래 참조)를 고려할 경우, ‘N₁’을 도구로 해석하기 어렵다.

1. 닳낚시: 배를 고정시켜 놓고 배에서 하는 **낚시질**. 2. 실낚시: 낚싯대나 찌 없이 낚시줄만 으로 물고기를 **낚는 일**. 3. 찌낚시: 낚시찌가 달린 낚싯대로 물고기를 **낚는 일**. 4. 채찍낚시: 채찍처럼 막대기 끝에 줄을 맨 낚싯대로 하는 **낚시질**. <<표준>>

11) ‘얼음낚시, 배낚시’가 사용된 양상을 보이는 자료 중 가장 오래된 자료로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인데, 그 중 ‘얼음낚시’와 관련된 자료인 “**釣魚**에는 相當한 苦行 隨伴된다. (중략) 冬至선달 雪寒風에 얼음에 구멍뚫고 손을불면서 꾸준히 **앞아있는** **筭**이그것이다.”<경향신문, 1955년 6월 16일자>에서 ‘조어(釣魚)’가 ‘낚시’를 나타내고 있으며, ‘얼음낚시’가 단일 개념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배낚시’도 “應接室에는 뱃사공이 배를타고 **낚시질** 하러나 가는 豊谷의山水畫 한幅이 걸려있다.”<경향신문, 1955년 12월 12일자>에서 ‘배낚시’가 단일한 합성어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어휘사를 논하는 것은 아닌 관계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6)의 ‘사냥’은 주로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와, (7)의 ‘납시’는 주로 ‘방법,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합성어를 이룬다. 이 때 핵 명사의 논항 선택에서 ‘사냥’과 ‘납시’가 차이를 보이는데, 조어법을 다룬 남기심(1983), 문금현(1999), 채현식(2000), 전영미 외(2007) 등에서 이러한 점은 설명되지 않았다.

먼저 남기심(1983)은 합성어 논의에서 처음으로 합성어의 어기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인가에 따라 그것을 유형화하였고, 문금현(1999)은 합성어의 내적 구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합성어가 ① 기존 형태의 합성과 ② 기존 형태의 변형, 그리고 ③ 재활용의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분류는 합성어가 다른 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문체와 한 어기가 다른 어기를 선택할 때 어떤 원리가 관여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는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 요인 등이 관여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찾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전영미·최동주(2007)에서 가장 생산적인 신어는 외래어이며, 그 중 합성법을 가장 생산적인 형성 절차로 보았다. 이 논의는 이분법적 체계로 만들어진 합성어의 결과를 유형화할 수 있는 의의가 있으나, 그러나 합성어가 생성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생활 방식·문물제도가 조어 방식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을 맺는가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¹²⁾

‘사냥, 납시, 농사’ 합성어들은 ‘식’이라는 동일 의미장에 속하지만, ‘사냥’과 ‘납시’는 핵 명사의 논항 선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본고는 그것을 ‘전경/배경 조직 원리’와 ‘중의성 회피 전략’으로 설명할 것이다(2장 참고). 뿐만 아니라 합성어의 수, 즉 합성어의 생산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차이는 어휘 의미 관계와 같은 언어 내적인 요인과 함께 ‘문물제도, 사회적·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언어 외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것이다(3장 참고).

12) 김광혜(1993:177)에서 “문물제도가 발전하거나 바뀌고,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변화는 즉각 그에 상응하는 어휘의 증가로 반영된다.”고 한 바 있다.

2. 서술성 명사의 논항 선택 원리

2.1. 핵 명사의 논항 선택에서의 차이

2.1.1. ‘도구’ 대 ‘방법’

‘N₁사냥, N₁냥시’에서 ‘사냥’과 ‘냥시’는 그 의미가 어떤 실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나 사건을 지시하는 서술성 명사이다. 따라서 ‘N₁사냥, N₁냥시’에서 ‘사냥, 냥시’가 핵이 되고, N₁은 핵 명사가 요구하는 논항 명사들인 경우가 많다. 이 때 N₁은 주로 도구, 방법, 장소 등을 나타내는 명사들이다. 그 중 N₁이 도구인 ‘N₁사냥, N₁냥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8) 개사냥, 그물사냥, 덧사냥, 매사냥, 총사냥, 틀사냥, 활사냥, 쏘사냥 (8개)
 (9) 대냥시, 릴냥시, 외줄냥시, 활냥시 (4개)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에 등재된 ‘N₁(도구)+사냥, 냥시’의 개수는 8개와 4개로 ‘사냥’이 두 배로 많다. 그리고 ‘N₁사냥, N₁냥시’ 합성어 전체에서 ‘N₁(도구)+사냥’은 전체 13개 중에 8개(61%), ‘N₁(도구)+냥시’는 전체 53개 중에 4개로 7.5%를 차지한다.

합성어 수를 토대로 볼 때, ‘사냥’은 주로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를 논항으로 선택하여 합성어가 되는 반면 ‘냥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냥’과 ‘냥시’의 핵 명사가 논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아래에서는 왜 ‘사냥’이 주로 도구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드는지 ‘매사냥’을 중심으로 살펴보자.¹³⁾

- (10) a. 거미사냥(7), 고래사냥(18), 곰사냥(31), 꿩사냥(12), 노루사냥(1), 늑대사냥(4), 다람쥐사냥(1), 독거미사냥(2), 동물사냥(2), 돼지사냥(3), 들소사냥(2), 들짐승사냥(2), 맹수사냥(1), 먹거리사냥(1), 멧돼지사냥(3), 물고기사냥(2), 물범

13) ‘매사냥’이 ‘매를 사냥’으로 해석될 때 그것은 통사적 구구성으로, ‘매로 사냥’으로 해석될 때는 합성어로 달리 처리된다.

사냥(2), 뱀파이어사냥(2), 벌사냥(1), 벌레사냥(1), 벼룩사냥(2), 부엉이사냥(1), 북극곰사냥(2), 비둘기사냥(1), 사슴사냥(9), 사자사냥(1), 산돼지사냥(2), 산짐승사냥(1), 순록사냥(1), 여우사냥(26), 오리사냥(1), 오소리사냥(1), 용사냥(2), 재규어사냥(1), 쥐사냥(4), 짐승사냥(8), 참새사냥(1), 캐러부사냥(1), 타조사냥(2), 토끼사냥(21), 학사냥(1), 호랑이사냥(8)

<세종원시말문치에서 ‘N(대상)사냥’ 출현 빈도>

b. 매사냥

c. 매를 사냥, 매로 하는 사냥

위 (10a)에서 보듯이, 그러한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은 ‘대상명사+사냥’ 구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대상명사+사냥’ 구성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선웅(2005:146-147)에서는 ‘논항+서술성명사 구성’과 ‘논항+비서술성 명사¹⁴⁾ 구성’을 비교하면서, ‘논항+비서술성명사 구성’이 ‘논항+서술성명사 구성’보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합성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바 있다.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기억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N_i(대상)사냥’은 통사적 구구성으로 처리하는 반면 ‘N_i(도구)사냥’만 합성어로 상반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매사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0b)의 ‘매사냥’은 (10c)처럼 ‘매를 사냥’, ‘매로 하는 사냥’처럼 중의적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냥’ 앞의 매를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도구로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자들은 ‘매’를 대상으로 먼저 인식하는데, 그러한 근거는 동사의 목적어가 동사와 가장 가까운 위치를 차지한다는 Tomlin(1986)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Tomlin(1986:4)에 따르면 서술어의 논항 구조에서 도구는 목적어인 대상보다 응집력이 낮고, 그 결과 서술어의 논항 구조에서 대상보다 위계성에서 낮다. 이러한 규칙에 의해 사람들이 대상을 도구보다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서술성 명사가 이루는 명사구에서 내부 논항 즉 목적어 명

14) 여기서의 논항+서술성명사, 논항+비서술성 명사 구성은 합성어와 구구성까지 포함한 것이며, 이선웅(2005)에서 언급된 용어는 보충어+술어명사, 보충어+비술어 명사였으나, 본고에서는 보충어 대신 논항, 술어명사 대신에 서술성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는 무표지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이선웅, 2005),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서술성 명사 앞의 무표지의 명사구는 내부 논항 즉 대상역인 논항을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대상 외의 **도구나 장소** 명사와 함께 ‘사냥’이 구구성을 이룰 경우 의미 해석이 불투명해지게 된다. ‘매사냥’은 ‘동사-목적어 결합성의 원리’와 ‘서술성 명사와 내부 논항 해석 규칙’에 의해 대상 이외의 의미가 전제되어야만 ‘매로 사냥’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매(도구)사냥’을 구구성으로 처리할 경우 그 의미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언제나 합성어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사냥’이라는 사건은 인지 구조 상 ‘행위자, 대상, 그리고 도구’를 참여자로 요구한다. 이 세 요소가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초점 자리를 차지한 것은 전경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배경으로 선택된다. 이 때 전경과 배경을 결정짓는 것은 “(행위자의) 관찰점과의 인접성”이다(Langacker, 1998:132).¹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냥의) 대상은 행위자(참여자)의 관찰점(시야)에서 지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도구’는 해당 사건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관찰점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뚜렷하고 쉽게 지각될 수 있다.¹⁶⁾ 그 결과 도구는 사냥 행위의 ‘전경(foreground)’ 요소로 선택되기 쉽고, 그 밖의 대상은 그러한 행위의 ‘배경(background)’ 요소로 선택되게 된다. 이렇게 ‘전경’ 요소로 선택된 도구가 ‘사냥’ 합성어의 논항으로 선택되고, 그 구성은 통사적 합성어를 이룬 반면 ‘배경’ 요소인 ‘대상’은 논항으로 선택되지 않아 전체 구성은 통사적 구구성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냥시’는 전경 요소의 선택에서 ‘사냥’과 다르다. 먼저, ‘냥시’가 ‘도구명사’를 논항으로 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냥시’의 뜻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예문 (1)에서 ‘냥시’는 비유적 의미와 ‘쇠갈고리(1a)’를 제외하면 사

15) “관찰점과의 인접성”이란 어떠한 요소가 ‘전경’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선택한 관찰점에서 가장 인접한 장면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6)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사냥을 하는데, 인간과 달리 동물은 사냥에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도구’는 사냥에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KBS 환경스페셜. 「테마로 본 한국의 생태계 - 제1편: 원초적 본능, 포식」, 2004. 04. 14. 방영>> 참조.

물(1b)과 함께 행위(=낚시질, 1c)를 지시하고 있다. 서술적 용법의 ‘N₁낚시’에서 두 가지 뜻(“낚시도구”와 “낚시질”)을 가지는 합성어를 앞의 (9)에서 제시한 바 있다. 논의의 편의상 (9)를 다시 써 보자.

- (9) a. 대낚시, 릴낚시, 외줄낚시, 활낚시
 b. 대낚시: ① 낚싯대를 써서 하는 낚시질. ② 대로 만든 낚시 도구.
 릴낚시: ① 낚싯대에 장치한 릴의 손잡이를 돌려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하는 낚시질. ② 낚싯대에 장치한 릴의 손잡이를 돌려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물고기를 낚는 도구.
 외줄낚시: ① 한 가닥의 줄에 낚싯바늘을 하나만 달아 고기를 잡는 일. ② 한 가닥의 줄에 낚싯바늘을 하나만 달아 고기를 낚는 도구.
 활낚시: ① 활 모양으로 되어 몇 개의 낚시를 달아 맨 손으로 하는 낚시질. ② 활 모양으로 되어 몇 개의 낚시를 달아 맨 손낚시.
 c. 대(도구)+낚시, 릴(도구)+낚시, 외줄(도구)+낚시, 활(도구)+낚시

위 예에서 각각의 형태가 중의적인 뜻을 가지는 것(9b)과 전체 구성의 IC 분석에서 ‘대, 릴, 외줄, 활’은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9c). 이때 위 합성어의 두 가지 의미는 형태로는 구분할 수 없고,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인 문맥에서만 구분할 수 있다(예문 (14, 15) 참조).

언어 사용자들은 한 형태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도록 하기도 하지만 (다의어 발생 원인), 때로는 한 형태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도록 하기도 한다 (동형어 혹은 다른 형태 발생 원인). 두 번째 이유로 화자들은 ‘도구명사+낚시’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구’보다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를 자신의 논항으로 선택하여 ‘낚시’ 합성어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자세한 것은 2.2.1.참조).

‘낚시’가 ‘도구명사’를 논항으로 주로 선택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본고의 연구 목적과 관련이 있다. 본고는 서술성 명사인 ‘낚시’가 어떤 어기를 논항으로 선택하는가를 논의하는 관계로 ‘낚시도구’를 나타내는 ‘N₁(도구)+낚시’ 합성어들(예문 (2))을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도구명사’를 자신의 논항으로 선택한 ‘낚시’ 합성어가 적은 것이다.

2.1.2. ‘사냥’ 대 Φ

‘사냥’은 도구를 자신의 논향으로 주로 선택하여 합성어를 이루고, ‘대상명사+사냥’ 구성은 합성어가 아닌 통사적 구구성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냥’이 대상명사와 함께 제 3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경우, 그것은 합성어가 된다(11a).

(11) a. 노예사냥, 마녀사냥, 기업사냥

- a¹. 노예사냥 : 노예로 만들거나 팔기 위하여 사람을 함부로 붙잡음.
 a². 마녀사냥 :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a³. 기업사냥 : 강제적으로 기업을 매수·합병하여 경영권을 빼앗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냥’이 대상과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경우는 (11)과 같이 비유적 의미를 가질 때에 한정된다. 이것은 ‘소도둑, 씨도둑’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소도둑, 씨도둑’이 합성어가 된 것도 “제 3의 의미 즉 비유적 의미 파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 참조).¹⁷⁾

원시 사회에서 ‘사냥’은 음식물을 얻는 생업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음식물을 사냥 대신 농사로 얻게 되면서 산업 구조가 ‘사냥’에서 ‘농사’로 변하게 된다. 더불어 1920년대에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사냥 금지’를 내린다.¹⁸⁾ 산업 구조의 변화와 ‘사냥 금지’ 같은 정책으로 ‘사냥’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따라서 ‘사냥’ 합성명사의 빈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12)와 같은 ‘사냥’ 구성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¹⁹⁾

17) ‘쌀도둑’은 사전에서 ⇨ 쌀도둑적으로 풀이되며, ‘쌀도둑적’은 곤충의 하나로 쌀과 곡류를 해치는 동물을 일컫는다. 이 경우에도 화자들이 ‘쌀도둑’을 곤충으로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이 구성이 의미적으로 불투명(넓게 보면 비유적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쌀도둑’이 합성어가 된 것이다.

18) 이 시기는 일제 강점기로 피지배 계급인 한국인과 지배 계급인 일본인 사이에 총기 오발 사고가 잦아지자 그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사냥 금지’ 법령을 내린 바 있다.

19) 합성어는 그것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존 합성어와 임시적

(12) 메달사냥, 금사냥, 정보사냥

최근 올림픽 및 월드컵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대상명사’와 결합한 (12)과 같은 구성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겨 ‘메달을 얻는 행위’를 ‘메달사냥, 금사냥’으로 지칭하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위를 ‘정보사냥’으로 지칭하면서 사용 빈도가 높아진 단어들이다.²⁰⁾ ‘정보사냥, 금사냥’은 기존의 ‘사냥’이라는 행위와 의미의 유사성에 의한 유추의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비유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채현식, 2000:72, 77).

반면 ‘냥시’ 합성어 수는 ‘사냥’보다 4배 이상이다. 그런데 ‘냥시’는 대상명사와 함께 통사적 구구성을 이룬다. 그 이유는 ① 생산성, ② 의미적 투명성, 그리고 ③ 냥시라는 행위에서 대상이 지각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냥시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은 ‘냥시’와 함께 ‘N₁∧냥시’ 구성을 이룬다(13).

- (13) a. 가물치[∧]냥시, 가자미[∧]냥시, 감성돔[∧]냥시, 고기[∧]냥시, 쫄치[∧]냥시, 농어[∧]냥시, 돌돔[∧]냥시, 돔[∧]냥시, 망둥이[∧]냥시, 메기[∧]냥시, 보구치[∧]냥시, 보리멸치[∧]냥시, 불락[∧]냥시, 빙어[∧]냥시, 송어[∧]냥시, 어름치[∧]냥시, 오징어[∧]냥시, 우럭[∧]냥시, 은어[∧]냥시, 잉어[∧]냥시, 장어[∧]냥시, 조기[∧]냥시, 참치[∧]냥시, 큰가자미[∧]냥시, 피라미[∧]냥시, 홍어[∧]냥시
 b. 가물치를 냥다, 가자미를 냥다, 감성돔을 냥다...

바다나 민물에서 냥시로 잡을 수 있는 대상이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 (13a)와 같은 구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면에서 (13a)와 같은 구성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형빈도(type frequency) 역시 높다.²¹⁾

합성어, 신형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김광해, 1993:17). ‘메달사냥, 금사냥, 정보사냥’은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관계로 ‘신형 합성어’ 혹은 ‘임시적 합성어’로 또는 통사적 구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임시 합성어’들이 높은 빈도로 넓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될 수 있다.
 20) ‘메달사냥, 금사냥, 정보사냥’은 사람들의 생활에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자주 사용된 것으로 ‘근접성의 원리’에 의해 합성어가 된 예들에 해당된다.

(13b)에서 핵 명사인 ‘N₂’가 선행 명사를 통사적 논항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N₁+N₂’는 합성어로 혹은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N₁낙시’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N₁이 낙시의 대상인 경우 어휘부에서 언제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부담이 되지 않아 그것은 통사적 구구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N₁(대상)낙시’가 통사적 구구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구성이 의미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이다. ‘가자미+낙시’는 ‘가자미’와 ‘낙시’로부터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전체 의미를 구성 요소의 의미로부터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투명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목록을 어휘부에 합성어로 저장하여 기억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어 통사적 구구성으로 처리한 것이다.²²⁾

앞에서 N₁이 서술성 명사가 기술하는 사건에서 ‘전경’에 해당할 때, 그것은 핵 명사의 논항으로 선택되어 합성어를 이루고, ‘배경’에 속하는 것은 (화자의 초점에서) 선택되지 못하는 관계로, 그것은 핵 명사의 논항이 될 수 없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낙시’에서 ‘대상’은 배경 요소이면서 ‘N₁(대상)+낙시’가 제 3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지 않은 관계로 합성어가 아닌 통사적 구구성이 된 것이다.²³⁾

지금까지 논의한 생산성, 의미적 투명성, 대상이 지각되는 과정을 근거로 ‘N₁(대상)+낙시’ 구성은 합성어가 아닌 통사적 구구성으로 볼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21) ‘대상명사+낙시’의 빈도는 전체 82/312로 장소(105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22) 조민정 외(2011:287-291)에서 ‘N₁(곰, 토끼)+사냥’은 통사적 구성으로, ‘마녀사냥, 노예사냥’ 등은 통사적 합성어로 달리 처리한다. 이렇게 동일한 구성을 달리 처리하는 근거는 ‘생산성’과 ‘제3의 의미 파생’에서 찾고 있다.

23) ‘배경’요소라 해도, (11a)에서처럼 그것이 핵 명사와 함께 높은 빈도로 사용되면서 제 3의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은 합성어로 처리되어 어휘부에 등재될 수 있다.

2.2. ‘N1뉘시’에서 N1을 선택하는 요인

2.2.1. 중의성 회피 전략

‘들사냥’과 ‘몰이사냥’에서 ‘들’은 사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지칭하고 ‘몰이’는 사냥을 하는 방법(방식)을 지칭한다. 이러한 장소와 방법(방식)명사가 ‘사냥’과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이룬 경우는 단 두 개에 불과하다(6). 이와 달리 (7)의 ‘뉘시’는 ‘방법, 장소, 도구명사’와 함께 합성어를 만들며, 비율로 따진다면 ‘방법’이 가장 높고, ‘도구’는 세 번째를 차지한다. 앞에서 ‘뉘시’ 합성어에서 도구를 논항으로 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중의성 회피 전략에서 찾았다.

앞의 (9)에서 ‘대, 릴, 외줄, 활’은 도구명사로 ‘뉘시’와 함께 합성어를 이루고, 그것은 ‘뉘시질’과 ‘뉘시도구’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두 가지 의미는 형태로는 구분할 수 없고, 아래 (14, 15)와 같이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문맥(맥락)에서만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 (14) a.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대낮에도 사람이 지나가기를 꺼려한다는 각시바우 소 깊은 물에 종일 혼자 **릴뉘시(뉘시도구)**를 던지셨던 거예요.
 b. 송어, 잉어, 향어 수백만 마리를 방류하고, 교통편이 편리해지면서 합천호에는 **릴뉘시(뉘시질)**의 성행으로 대뉘시를 하기 힘든 것이 흠이다.

위 (14a)의 ‘릴뉘시’는 ‘뉘시도구’로, (14b)의 ‘릴뉘시’는 ‘뉘시질’로 교체할 수 있다. 교체 검증을 토대로 ‘릴뉘시’는 ‘뉘시도구’와 ‘뉘시질’의 두 가지 뜻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화자들은 위 합성어의 두 가지 뜻을 문맥을 통해 파악하거나(14), 수식어나 대응되는 서술어를 통해 파악한다(15).

- (15) a. 떡발 릴뉘시로는 참붕어·떡붕어·잉어, 지렁이 릴뉘시로는 메기와 가물치가 잘 잡힌다.
 b. 롤러뉘시란 낚싯줄에 20 ~ 30 개의 겹뉘시를 단 롤러뉘시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낚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롤러가 달린 받침대를 밧전에 설치하여 낚

깃줄을 틀러를 거쳐 자세로 감아올림으로써 오징어를 낚는다.

(15a)에서는 수식어인 ‘떡밥, 지렁이’를 통해 ‘릴낚시’가 ‘낚시질’임을, (15b)에서는 서술어 ‘방법이다’를 통해 ‘틀러낚시’가 ‘낚시질’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자는 해당 어휘의 중의성을 (14, 15)과 같은 통사적인 전략을, 때로는 특정 어기를 논항으로 선택하는 조어법상의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즉 화자들이 조어법상 ‘낚시’ 합성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N₁’으로 ‘도구’보다 ‘방법’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²⁴⁾

이 밖에 ‘낚시’가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를 자신의 논항으로 덜 선택하는 것은 앞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합성어로 분류된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논의의 편의상 (2)를 다시 써 보자.

- (2) 갈고리낚시, 겹낚시, 미끼낚시, 민낚시, 민지낚시, 방울낚시, 빈낚시, 뼈낚시, 삼봉낚시, 소경낚시, 속임낚시, 외줄낚시, 이음낚시, 제물낚시, 훔낚시(14개)

위 (2)는 사전에 등재된 ‘낚시’ 합성어로, 그것은 동작이나 사건이 아닌 “낚시도구”를 가리킨다. 화자들은 한 형태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때 의미 전달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위 (2)의 ‘갈고리, 겹, 미끼, 민 …’ 등의 어기와 결합한 ‘낚시’ 합성어는 “낚시도구”만을 지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화자들이 합성어 형성 시 나타나는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은 ‘사냥’과 ‘낚시’에서 같지 않다. ‘매사냥’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하나는 합성어(매가 도구일 때)로 하나는 통사적 구구성(매가 대상일 때)으로 달리 처리하는 형태론적 방식을 취하는 반면 ‘낚시’에서는 특정 어기(방법)를 주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중의성 회피 전략’ 때문이라고 본다.

24) 심사자의 지적대로 ‘사냥’은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적 용법만 가지는 반면 ‘낚시’는 서술적용법과 함께 도구도 나타내기 때문에 ‘도구명사’를 자신의 논항으로 덜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2. 논항의 기능 - 행위의 변별

시간이라는 범주는 공간 개념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의 배경을 이루고 구축 짓는 구실을 한다. ‘사냥’이나 ‘낚시’는 모두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속하는 고로,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을 전제로 한다. 시간과 공간이 모든 행위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공간 요소인 장소가 행위에서 전경 요소로 선택될 근거는 낫다. 그런데 장소명사를 자신의 논항으로 선택하여 합성어를 만드는 데서 ‘사냥’과 ‘낚시’가 차이를 보인다.

(16) a. 들사냥

b. 갯바위낚시, 계류낚시, 민물낚시, 바다낚시, 배낚시, 빨낚시, 수초낚시, 시내 낚시, 얼음낚시, 자리낚시

위에서 보듯이, ‘사냥’이 장소명사를 취한 것은 ‘들사냥’이 유일하다. 그렇지만 ‘낚시’가 장소명사와 함께 합성어를 만든 것은 9개이다. ‘사냥’과 달리 ‘낚시’가 장소명사를 자신의 논항으로 선택해 합성어를 활발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17) a. 갯바위낚시로는 감성돔 돌돔 흑돔 농어 등을 잡을 수 있다. 바위에 김이 붙기 시작하는 12월부터 감성돔이 많이 나온다.

b. 내가 태어나던 1964년 7월 12일에 아버지는 울진 왕피천에서 은어낚시를 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그는 왕피천과 호산 가곡천, 그리고 양양에 있는 남대천으로 계류낚시를 즐기러 가곤 했다.

위 (17)에서 ‘갯바위낚시’와 ‘계류낚시’로 잡는 대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대상이 다른 것은 방법보다는 오히려 장소에 있다. 장소가 ‘바다’에서 ‘민물(시내)’로 교체되면서, 낚시의 대상(물고기)이 ‘감성돔’에서 ‘은어’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잡는 방식까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소가 해당 서술성 명사가 지시하는 행위(여기서 하위 행위는 방식과 대상)를 구분할 때 그것이 핵 명사와 함께 합성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방식을

‘농사’ 합성어에서도 볼 수 있다.

제3의 의미 파생 외에 ‘사냥, 낚시’는 일반적으로 대상명사를 자신의 논항으로 선택해 합성어를 이루지 않는다. 반면 ‘농사’는 제3의 의미 파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대상을 자신의 논항으로 선택하여 합성어를 만든다.

(18) 밤농사, 벼농사, 보리농사, 쌀농사

위 (18)에서 ‘밤, 벼, 보리, 쌀’은 핵 명사 ‘농사’의 대상역 명사이다. 그리고 ‘밤농사, 벼농사’의 전체 의미도 부분의 합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3의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대상명사+농사’가 합성어가 된 것인데, 이러한 점은 생산성, 논항의 위계성, ‘서술성 명사와 내부 논항 해석 규칙’에서 보면 통사적 구구성이어야 하나 합성어가 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먼저 농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농사의 대상이 ‘밤’에서 ‘벼’로 혹은 ‘보리’로 바뀌면, 우리는 그러한 행위에 수반되는 행위(하위 행위 요소)가 달라지는 것을 ‘농사’의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농사’는 “**곡류, 채소류 따위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따위의 일**”로 풀이되어 있다(진하계와 밑줄은 필자가). 뜻풀이에서 보듯이, ‘농사’라는 행위는 ① 곡류나 채소류의 씨나 모종을 땅에 심은 행위, ② 그것을 기르는 행위, ③ 거두거나 채취하는 세 단계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 때 ‘대상’은 농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N₁’인 대상명사가 서술성 명사가 지시하는 행위를 구분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N₁’이 대상역을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그것이 행위를 구분짓는 경우(화자의 관찰점에서) ‘전경’ 요소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농사의 대상이 화자의 관찰점에서 가까워 그 결과 뚜렷하고 쉽게 지각된다. 이 경우 ‘대상’이 화자의 ‘초점 자리’에 놓이면서 전경 요소가 된 것이다. 그리고 전체 구성인 ‘N₁(대상)농사’가 합성어가 된 것이다.

‘N_i(장소)낚시’ 구성이 합성어가 된 것은 ‘N_i(대상)농사’에서 보듯이 ‘장소’가 행위의 차이를 만들어 ‘전경’ 요소로 선택된 것과 함께 ‘N_i(장소)낚시’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자주 사용된 것도 한 이유가 된다(근접성의 원리). 즉 경제 발전과 그에 따라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서 ‘낚시’를 즐기는 인구와 함께

동호회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N_i(장소)+낙시’가 높은 빈도로 자주 사용되면서²⁵⁾ 그것이 어휘부와 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래 3.2.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합성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간접

‘사냥’과 ‘낙시’는 ‘식’의 의미장에 속하지만, 핵 명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의 수와 생산성에서 동일하지 않다. 해당 어기와 결합되는 어기의 수로 측정되는 생산성은 언어 내적인 요인에 해당된다. 이 밖에 어기의 생산성이 ‘사냥 금지’와 같은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사냥 금지’와 같은 것은 언어 외적인 요인에 해당된다.

먼저 ‘사냥, 낙시’ 합성어의 생산성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려할 언어 내적 요인으로는 해당 명사의 어휘 의미 관계를 들 수 있다. 어휘 의미 관계란 해당 명사가 어휘 의미에서 맺는 관계로, 그것에는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의관계’ 등이 있다.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되는 어휘가 의미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인해 해당 명사의 생산성이 변할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먼저, ‘사냥’은 유의어로 ‘수렵’을, ‘낙시(행위의 하나인)’는 유의어로 ‘낙시질’을 가진다. 이들이 유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해당 어휘의 사전 뜻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19) a. 사냥: 총이나 활 또는 길들인 매나 올가미 따위로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
 b. 수렵: ≍ 사냥
- (20) a. 대분지 주민들의 여름의 중요한 음식물은 **사냥**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a' 사람들은 옛날에는 모두가 **사냥**, 고기잡이, 농사 등을 **일로 삼고 있었으나**,

25) 사전의 표제어 대다수는 빈도에 의해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동일한 구성이나 고빈도의 ‘어린이(802회), 젊은이(1255회), 늙은이(11676회), 글쓴이(20168회)’는 단일한 어휘로 어휘부에 등재된 반면 저빈도의 ‘웁긴 이, 퍼넨 이, 박은 이’ 등은 통사적 구성으로 처리된다. 이는 조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웁긴 이, 퍼넨 이’ 등은 단일한 어휘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저빈도의 형태는 빈도 사전뿐만 아니라 어휘부,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 b. 활촉은 원시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인 **수렵** 도구였으며, 동시에 무기였다.
- b'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던 시대의 산업은 농경, 어로 외에도 **수렵**, 베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위 (19b)에서 ‘수렵’은 “사냥”으로 풀이되어 있고,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을 지시하는 면에서 ‘사냥’과 ‘수렵’은 유의어이다. 두 어휘의 의미는 같으나, 그 둘이 사용되는 영역(사용역)이 다른데, ‘수렵’은 주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주민)의 행위를 기술할 때 사용되는 반면, ‘사냥’은 주로 청동기 시대 이후 사람들(정착민)의 생활을 기술할 때 사용된다. 두 어휘가 사용되는 영역이 다름에 따라 청동기 시대 이후 ‘사냥’의 생산성 변화에 ‘수렵’이라는 유의어(언어 내적 요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냥’ 합성어의 생산성이 낮아진 것은 유의어와 같은 언어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언어 외적인 요인 중 산업 구조의 변화(식량을 ‘사냥 → 농림·어업’으로 획득)와 ‘사냥 금지’ 같은 생활·문화적인 조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자세한 것은 3.2. 참조).²⁶⁾

다음 ‘낚시’의 생산성 변화를 유의어인 ‘낚시질’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 (21) a. 낚시: 1. 낚시바늘, 2. 낚시도구 전체, 3. = 낚시질, 4.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이를 꾀는 데 쓰는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b. 낚시질: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일. ≍ 낚시
- (22) a. 당신이 그렇게 싫다면 나 바둑도 안 두겠어. 물론 **낚시도/낚시질도** 안 갈 거야.
- b. **견지낚시/*견지낚시질** 알아? 낚시줄을 개울물에 늘어뜨리고 물고기를 채서 낚는 거야.
- c. 여름이 되면 그는 왕피천과 호산 가곡천, 그리고 양양에 있는 남대천으로 **계류낚시를/*계류낚시질을** 즐기러 가곤 했다.

26) 한국 산업 구조가 시대별로 달라짐은 한국은행(1971), 『한국산업구조의 재편성』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을 참조.

(21a)에서 보듯이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지시할 때 ‘낚시’와 ‘낚시질’은 교체되어 쓰이고, 그 둘은 유의어를 이룬다. 동일한 의미 영역을 ‘낚시’와 ‘낚시질’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볼 때, ‘낚시’ 합성어의 생산성도 유의어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22b, c)에서 ‘건지낚시, 계류낚시’는 ‘건지낚시질, 계류낚시질’로 교체되지 않는다. ‘N₁낚시’와 ‘N₁낚시질’이 의미 영역을 나누어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토대로, ‘N₁낚시’ 합성어의 생산성에 유의어와 같은 언어 내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N₁사냥’ 합성어의 생산성이 감소한 반면 ‘N₁낚시’ 합성어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에 언어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N₁사냥’의 생산성 감소를 ‘사냥’과 ‘수렵’이라는 유의어(언어 내적 요인)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N₁낚시’ 합성어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은 ‘N₁낚시’와 ‘N₁낚시질’이 교체될 수 없는 관계로 언어 내적 요인으로 생산성 증가를 설명하지 못함을 논의하였다.

아래에서는 ‘N₁사냥’과 ‘N₁낚시’ 합성어의 생산성 변화를 언어 내적인 요인 외에 언어 외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3.2.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한 간접

합성어의 의미역을 고려하지 않고 수만 고려할 때, ‘N₁낚시’의 수는 ‘N₁사냥’의 4배 이상이다. 합성어의 수에서 보이는 차이는 곧 조어의 생산성에서의 차이를 말한다. 조어에서 생산성 변화는 언어 내적인 요인과 함께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남기심(1983:203), 김광해(2009)에서 볼 수 있다. “신어는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양상을 반영하게 되므로 신어들의 목록을 통해서 사회의 변동상을 읽을(김광해, 2009:181) 수 있는데, 아래의 예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23) 양철(洋鐵), 생철(서양철(西洋鐵)), 양은(洋銀), 양말(洋襪), 양복(洋服), 양옥(洋屋), 양동이, 양배추... <남기심, 1983:194에서 다시 가져옴>

위 (23)의 어휘들은 개화기를 전후하여 서양의 문물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 오면서,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국내에서 만들었거나 또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차용한 말들이다. 또한 남기심(1983:203)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정 접사 혹은 어기 역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생산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²⁷⁾, 그것은 어떤 어휘의 생산성은 바로 사회적 필요성(근접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사냥’의 사용 빈도 변화<뉴스 라이브러리 참조>와 함께, 아래의 예문 (24a, b)는 ‘사냥’이 음식을 취하는 산업의 한 형태인 반면 (24c)는 취미로 간주되는 상황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 (24) a. 대분지 주민들의 여름의 중요한 음식물은 사냥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b. 신석기인들은 강가나 해변에다 움집을 짓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잘 갈아서 만든 석기로 물고기 또는 조개를 잡거나 사냥으로 양식을 구했고...
 c. 취미업은 생활은 죽은생활이지요!조선사람에게는 이취미의생활이업소이다. 그중에 오직하나인 ‘총’을가지고 사냥다니는 취미도 당국의불허가로 마음대로하지못합니다. <동아일보, 1924, 1.13. 사회면 기사>

위 (24a, b)에서 보듯이 원시 사회에서 ‘사냥, 낚시’는 음식을 얻는 생업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1920년대 상류층의 취미란에 ‘사냥’이 등장하기 시작한다(24c). 일제 강점기인 이 시기 한국인이 일본인을 겨냥한 총기 사고가 잦았다. 이후 일본 당국이 ‘사냥’을 금지하는 것을 (25b, c)에서 볼 수 있다.

- (25) a. 그들의생활상태로말하면 산간에잇서서는 신재(新材)의공급을 주업으로하고겨울에는 사냥(수렵(狩獵))과 물질의운반등으로써 생업을삼는데... <동아일보, 1921.5.23. 사회면 기사>

27) 남기심(1983:203)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농촌과 벌어지고 산업이 공업화됨에 따라, 그리고 도시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뜻-’과 같은 접두사는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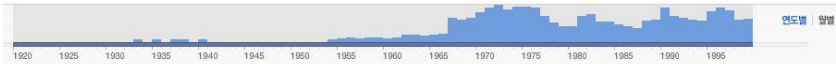
- b. 못된짐생의 출몰하는것은 조선사람에게 사냥을함부로 하지못하게한 까닭 이라함은 일반의 불평인듯하다. <동아일보, 1922.7.1. 사회면 기사>
- c. 취미업는 생활은 죽은생활이지오!조선사람에게는 이취미의생활이업소이 다. 그중에 오직하나인 ‘총’을가지고 사냥다니는 취미도 당국의불허가로 마음대로하지못합니다. <동아일보, 1924, 1.13. 사회면 기사>

1920년대 당국에 의해 ‘사냥’이 금지되면서, 사냥의 비중이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점점 낮아지다가 해방 이후 ‘호랑이, 여우, 곰’ 등의 개체수가 감소해 그 동물들이 희귀 동물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사냥’이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²⁸⁾ ‘사냥’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사냥’ 합성어의 사용 빈도 역시 낮아지게 된다. ‘사냥’합성어는 1940년대 이전에는 1회, 45-49년(1회), 50년대(0회), 60년대(2회), 70년대(19회), 80년대(51회), 90년대(139회), 2000년대(102회)를 보인다. 80년대 이후부터 비유적 의미의 ‘사냥’합성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사냥 금지’와 같은 정책으로 ‘사냥’의 빈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사냥’ 합성어의 생산성이 ‘낚시’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다.²⁹⁾ 이것은 해당 어휘가 일반 화자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해당 어휘의 생산성이 달라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스포츠 중계와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이 증가하면서 ‘사냥’ 합성어의 사용 빈도와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림 1> 뉴스 라이브러리 ‘사냥’의 사용 빈도 변화

- 28) 연세말뭉치에 없는 1920-45년 이전 자료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참조하였고, ‘사냥’의 빈도가 20년(1회), 21년(7회), 23년(5회), 24년(11회), 25년(5회), 26년(6회), 27년(3회), 28년(18회), 29년(24회), 30년(9회)…40년대(28회)이었다. 사냥이 금지된 1924-1927년까지는 기사에서는 검색되지 않고 소설에서만 보인다. ‘사냥’합성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세 말뭉치 검색 결과 ‘사냥’ 빈도가 45-49년(5회), 50년대(33회), 60년대(158회), 70년대(233회), 80년대(652회), 90년대(432회), 2000년대(372회)로 나타난다.
- 29) 연세말뭉치 검색 결과 ‘낚시’합성어의 빈도는 40년대(2회), 50년대(0회), 60년대(5회), 70년대(58회), 80년대(116회), 90년대(356회), 2000년대(138회)로 나타났다.



<그림 2> 뉴스 라이브러리 ‘낚시’의 사용 빈도 변화

위 그림2는 ‘낚시’의 사용 빈도이고, 그것은 ‘사냥’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낚시’의 사용 빈도 변화는 ‘낚시’가 사람들의 생활 및 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 기인한다. 먼저 아래 (26)에서 보듯이,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음식물을 ‘사냥’과 함께 ‘낚시(어로)’를 통해 얻었다. 이후 그것은 사람들의 취미란에 자주 등장한다. ‘낚시’가 취미의 하나로 기술된 최초의 기사는 <동아일보, 1956. 7.10 일자>에서이다.

- (26) a. 옥저(沃沮)와 동예(東濊)는 한반도 동북부의 해안지방을 점거하여 수렵(狩獵)과 어로(漁撈) 또는 목축(牧畜)을 주요 생업으로 삼아왔다.
- b. 낚시의 묘미는 역시자연과더불어 친할수있다는것과 건강에 좋다는것은물론 내일의 활동을 보다더 능률적으로 만들기위한 뒷받침이될수있는 근래 “스포르츠”인데 있다. (‘낚시와 趣味’, 동아일보, 1956.7.10. 상황/문화 기사)
- c. 바다낚시는 외국인 피시동호인을위한 관광자원으로도 클로즈업되고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략) 여기에 관광낚시로 바다낚시가 두드러지게 되고 낚시터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매일경제, 1971.10.25. 기사>

최근에 ‘낚시’가 취미를 넘어 스포츠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을 (26b)에서 볼 수 있고, 현대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 활동의 하나로 간주되는 것을 (26c)로 알 수 있다. 위 (26c)의 ‘바다낚시’는 대표적인 ‘낚시’ 합성어이다.³⁰⁾ 최근 ‘바다낚시’와 같은 ‘N₁(장소)+낚시’의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낚시’합성어가 연중들의 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26c)에서 보듯이 ‘낚시’가 취미를 넘어 관광 상품으로 개발·판매되면서 그것은 산업 활동의 하나가 된다.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낚시를 찾게 되면서 선주들이 다양한 낚시 장소를 개발하여, 낚시꾼들을 모으고, 또한 여

30) 이 말은 <<세종말뭉치>>의 ‘낚시’ 사용 빈도에서 전체 312번 중 57번 나타나 18%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밤낚시(27번), 배낚시(21번), 갯바위낚시(16번)’ 순이다.

행사들도 ‘낚시 관광 상품’을 여행 상품으로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있다.³¹⁾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낚시’ 합성어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위가 화자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근접성의 원리와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두 요인이 합성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농사’ 합성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농사’ 합성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27) a. 갈이농사, 건달농사, 구들막농사, 구메농사, 권농사, 논농사, 돈농사, 반농사, 밤농사, 밭농사, 벼농사, 보리농사, 보습농사, 사밭농사, 쌀농사, 짚농사, 풀농사, 헛농사 총 18개
- b. 건달농사, 꿩이농사, 꿀농사, 다시마농사, 두그루농사, 두벌농사, 땅농사, 푸지개농사, 막농사, 물모농사, 물농사, 버덩농사, 벌농사, 부대기농사, 부대농사, 북데기농사, 세벌농사, 어거지농사, 억지농사, 장배기농사, 진갈이농사, 촌농사, 포기농사, 한그루농사, 홑앗이농사 총 26개 <북한어>

위 (27a)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농사’ 합성어의 수가 18개로, 그것은 북한어로 등재된 수(26개)보다 적다. 수뿐만 아니라 논항의 의미역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N₁농사’ 합성어는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남한어에서 ‘농사’를 짓는 대상은 ‘밤, 벼, 보리, 쌀’이지만 북한어에서는 그것 이외에 ‘꿀, 다시마, 벌, 무’ 등이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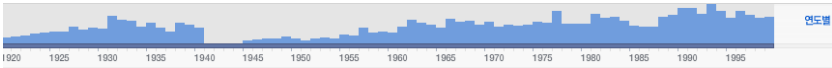
남한에서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농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농사’는 1980년대를 최고점으로 하여 이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하향 산업으로 분류된다. 농업의 구조 변화를 다룬 한국은행(1971)과 농촌경제연구원(2003)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GN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표 1> 참조.).

31) 1950년대 이후 ‘낚시’가 일반인들의 취미로 각광을 받으면서, 낚시 동호회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낚시의 방법뿐만 아니라 낚시 장소의 개발이 활발히 일어난다<<네이버 뉴스 기사 검색 참조>>. 그 중 ‘바다낚시’는 ‘배낚시’, ‘얼음낚시’와 함께 낚시꾼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것 중 하나이다.

<표 1> GNP와 농업생산 비중

년도	GNP	농업/GNP
1965	805.9	37
1970	1,422.3	24.1
1980	38,148	12.6
1985	82,062	10.7
1990	179,539	7.3
1995	377,350	5.3
2000	521,959	4.1

농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북한에서는 식량을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식량을 ‘농사’ 이외에 ‘수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³²⁾ 이러한 농업 구조의 변화로 ‘농사’ 합성어의 사용 빈도 역시 낮아지고 있음을 아래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 뉴스 라이브러리 ‘농사’의 사용 빈도 변화³³⁾

위 <그림 3>에서 보듯이, ‘농사’를 포함한 단어가 1993년 928건을 기점으로 그 이후 점차 사용 빈도가 감소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그 빈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는 벼농사를 포함한 농사 인구 감소와 더불어 산업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국민은행, 1971; 농촌경제연구원, 2003).

지금까지 해당 명사의 생산성은 해당 명사의 유의어 및 관련어와의 의미 영역 공유와 같은 언어 내적인 것과 언어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냥’과 관련된 요인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수렵 → 사냥 → 농경)와

32) 한국은행(1971:155)에서 농작물 수입량이 103,804(1965), 200,759(1970)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33)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키워드 ‘농사’로 검색할 경우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기사 검색을 통해, 이 속에는 ‘농사’합성어와 구구성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단일어로 사용된 빈도는 이보다 훨씬 낮다.

정책(조선인의 사냥금지 정책)과 생활의 변화(스포츠 중계와 인터넷 사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낚시’는 산업구조의 변화(주 산업 → 취미 → 관광산업)와 낚시 인구의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N₁사냥, N₁낚시’ 구성에서 ‘사냥’은 ‘N₁’으로 도구명사를, ‘낚시’는 ‘방법, 장소명사’를 주로 선택하는 이유를 첫째, ‘전경/배경 조직’원리와 ‘중의성 회피 전략’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도구명사+사냥’ 구성이 합성어가 되는 것을, ‘방법명사+낚시’ 구성은 도구명사와 낚시가 이루는 중의성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성어 방식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비유적 의미를 가지는 ‘대상명사+사냥’ 구성이 합성어를 이룬 반면 ‘낚시’는 그러한 비유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관계로 ‘대상명사+낚시’가 구구성을 이룸을 함께 논의하였다.

그리고 ‘N₁사냥, N₁낚시’ 합성어의 생산성에서 보이는 차이를 ‘전경/배경 조직’과 함께 ‘근접성 원리’로 설명하였다. 먼저, ‘사냥 금지법’의 시행이 ‘사냥’ 합성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해당 합성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농사’ 합성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논의하였다. ‘낚시’합성어는 ‘사냥, 농사’합성어와 달리 ‘장소명사’를 논항으로 선택하여 합성어를 형성하는 것을 ‘근접성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언어 사용자들의 삶에서 해당 어휘의 필요성이 높을 때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는 새말이 생산적으로 만들어짐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이상으로 ‘N₁사냥, N₁낚시’ 합성어 형성 시 ‘N₁’ 선택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는 단어가 사용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을 사용하는 언중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는 유사한 구조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방향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광혜(1982), “복합명사의 신생과 어휘화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88, 국어국문학회, pp. 1-29.
- 김광혜(1993), 「국어 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김광혜(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남기심(1983), “새말의 생성과 사멸”, 이기문 외 『한국 어문의 체문제』, 일지사.
- 노대규(1982), “국어의 복합어 구성 법칙”, <인문논총>4, 한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 5-26.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33호, 국어학회, pp. 295-325.
- 박동근(2006), “내적변화에 의한 과생과 유표성”, 『한말연구』19, 한말연구학회, pp. 95-120.
- 송현주(2010), “한국어 합성어에 나타난 동기화 양상”, 『한글』289, 한글학회, pp. 125-141.
- 신현숙(2004), “어휘 정보와 문화 정보: {옷/밥/집}”, 『한국언어문화학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 125-142.
- 신희삼(2008), “N1+N2의 의미구조 연구”, 『한국어 의미학』26, 한국어 의미학회, pp. 103-122.
-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 전영미 · 최동주(2007), “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한민족어문학』50, 한민족어문학회, pp. 37-70.
- 정한데로(2010), “문법 차원의 등재에 대한 연구”, 『형태론 12·1, 형태론연구회, pp. 1-22.
- 조민정외(2011), “합성명사 형성 및 개념 확장 방식에 대한 논의”, 『한말연구』28, 한말연구회, pp. 281-304.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 채현식(2006), “합성명사에서의 의미 전이화 관습화”, 『한국언어문학』58, 한국언어문학회, pp. 5-23.
- 채현식(2006), “은유표현의 해석과 유추”, 『한말연구』19, 한말연구회, pp. 377-397.
- 최지훈(1998), 「전의 합성명사의 인지미론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최형용(2006), “합성어 형성과 어순”, 『국어국문학』143, 국어국문학회, pp. 235-271.
- 하치근(2009),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도서출판: 경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경희정보인쇄.

- 한국은행(1971), 『한국산업구조의 재편성』, 삼성인쇄주식회사.
- Downing, P.(1977),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53, pp. 810-842.
- Langacker, R.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l*, 김종도역(1998),
 박이정.
- Nida, E.A.(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The Hague: Mouton
 Publishers.
- Ullmann, S.(1957), *The Principle of Semantics*, Glasgow: Jackson and Oxford:
 Basil Blackwell.
- Tomlin, R.S.(1986), *Basic Word Order*, Croom Helm: Kent.

<사전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원(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편(1996),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편)(1988),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기문 · 임홍빈(1994), 『참국어사전』, 두산동아.
- 임홍빈(1993), 『한국어사전』, SISA Education.
- 한글학회(편)(1992),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3).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2003).
- Merriam-Webster's Dictionary of Synonyms*, Merriam-Webster Incorporated
 (1984).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20-749
 전화 번호: 02-2123-8250
 전자 우편: jeni010@yonsei.ac.kr FAX: 02-393-5001

원고 접수일: 2013년 2월 28일
 원고 수정일: 2013년 4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3년 4월 22일